

2015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환영사

한국은행 허재성 부총재보

<들어가며>

안녕하십니까? 한국은행 허재성 부총재보입니다.

2015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. 바쁘신 중에도 컨퍼런스의 사회를 흔쾌히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**이충렬 교수님**, 주제발표를 하시는 **김남훈 연구위원**, **이건범 교수님**,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현안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 금년에는 **“지급결제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과제: 혁신과 안정의 조화”**를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

<핀테크 현상 및 지급결제 혁신 대한 이해>

지난해부터 확산되고 있는 **“금융과 IT의 융합”**, 즉 **핀테크(Fintech)**는 금융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거의 상식이 될 정도로 널리 알려졌습니다. 네이버 트렌드 검색결과 <참고 1>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불과 1년 사이에 “핀테크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습니다.

최근에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핀테크 현상은 과거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 **소비자들이 각종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**져 있는 데다, IT기술의 정점에 있는 글로벌 IT기업 등 **비금융기업 주도**로 지급결제 및 금융 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또한 핀테크 산업은 초기의 지급결제대행, 외화송금 등 지급결제 위주에서 점차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출, 투자, 개인자산관리 등 **광범위한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확장**하고 있습니다. 또한 기존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대체하는 **비트코인(Bitcoin)과 같은 디지털통화도 등장**하고 있습니다.

한편 지급결제 부문에 IT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**디지털 혁명(Digital Revolution) 또는 디지털화(Digitalisation) 현상**을 배경으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의 도입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의 **시간적·공간적 제약을 해소**함으로써 **소액결제의 구조적 변화**가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어쩌면 1967년에 발명된 **ATM(Automated Teller Machine)기**가 **금융·IT 융합 현상의 시초**였는지도 모릅니다.

따라서 핀테크 현상을 디지털 혁신에 의한 지급결제시장 및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와 연계하여 좀 더 넓은 시야로 확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인터넷과 모바일 또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는 **디지털 세상**은 앞으로 **지급결제 및 금융 서비스에 더욱 거대한 영향**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한 기존의 금융기관이나 지급결제 인프라는 지속적인 혁신의 요구와 필요성에 직면할 것입니다.

현재 미디어를 통해 연일 새롭게 알려지고 있는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등의 **각종 “페이(Pay)”는 어쩌면 금융혁신의 서막에 불과** 할 수도 있습니다. 영국의 이코노미스트(Economist)지 및 글로벌 컨설팅기관 등에 의하면 이러한 금융혁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은행 등 기존 **금융산업의 미래가 매우 비관적**일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.

이미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실물부문의 디지털화는 기존 산업의 구조에 미치는 **파괴적 혁신(disruptive innovation)**의 결과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. 대표적인 사례가 **음악, 출판, 그리고 미디어 산업**입니다. 온라인 서점의 성장으로 세계 최대의 오프라인 서점이 도산하거나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고, MP3 파일에 밀려난 음악 CD는 대형 건축물의 외관을 장식하는 소모품<참고 2> 으로 전락했습니다.

<지급결제에 대한 장기 비전: 혁신과 안정의 조화>

한편 다양한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누리는 **편리함의 이면**에는 **사이버보안 우려 등 각종 리스크**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한국은행의 설문조사에서도 신규 지급수단의 확산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소비자들은 **정보유출이나 보안에 대한 우려**를 들고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 또는 안전성 확보가 함께 가야 합니다.

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에서 지급결제 서비스는 **혁신과 안정**이라는 양 날개로 균형있게 나는 새, 또는 좌우의 정확한 무게중심을 잡아야 건널 수 있는 **줄타기**로 비유하기도 합니다. 혁신과 안정을

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용기와 함께 사려깊은 주의도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.

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혁신과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디지털 혁신에 의한 **지급결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포착**하는 한편 현재의 소액결제 인프라를 포함하여 **우리나라 지급결제시장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과제를 논의**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지급결제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**소비자 보호 방안**이나, 은행 등 전통적인 지급서비스 제공기관과 새로운 지급서비스 시장참가자들간의 **경쟁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** 등도 중요한 논의과제가 되어야 합니다.

오늘 컨퍼런스 발표와 논의를 통해 지급결제 및 금융혁신이라는 거대한 조류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시장의 주요 당사자인 금융기관, 지급서비스 제공기관, 정책당국 등이 더욱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**“혁신과 안정 또는 신뢰간의 적절한 균형점”을 찾는데 다소나마 지혜를 얻기**를 기대합니다.

<맺음말>

디지털 세상 또는 핀테크 혁신의 시대에도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. 즉 중앙은행의 주요 관심은 여전히 **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만들어 화폐에 대한 신뢰(confidence)를 유지**하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. 특히 앞으로 중앙은행은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촉진자(facilitator)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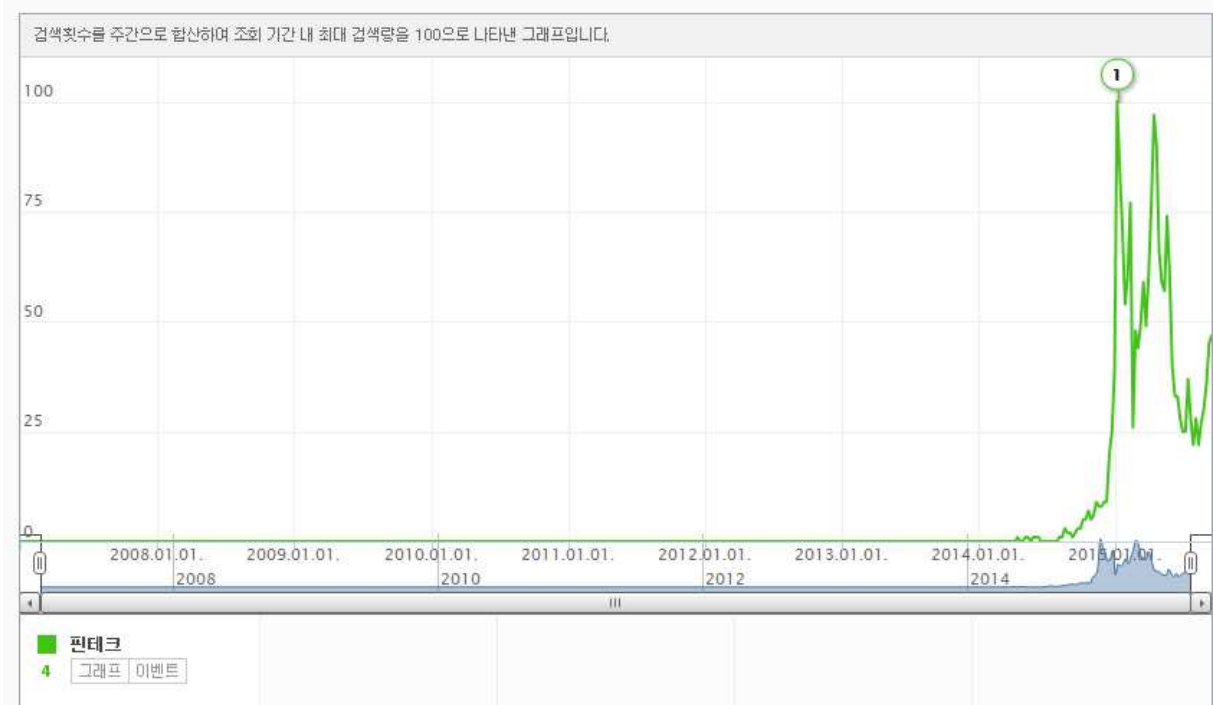
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금융혁신을 위한 변화의 요구 및 흐름에 맞춰 지급결제시장에 참가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**지급결제제도의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**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한국은행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<참고 1>

네이버 트렌드 검색(핀테크)



<참고 2>

